2026.10.13 · 전날 독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과 좋은 삶을 만드는 일

오늘 가장 중요한 대조는 "경제의 출렁임을 줄일 수 있는가"와 "좋은 삶을 누구에게 보장하는가" 사이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발표와 마이클 로버츠의 케인스 비판을 함께 읽으면, 둘을 같은 질문으로 취급할 때 논쟁이 어긋난다는 점이 보입니다. 만화가의 생계와 AI 연구의 검증 문제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독해에서 남길 것은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와 그 성과가 누구의 삶을 바꾸는지를 따로 묻는 습관**입니다.

새 글 18편 전문 독해, 10편 분석.

대상은 10월 12일 00:00~23:59 KST입니다. 받아 온 새 글의 본문을 모두 읽은 뒤 선택했습니다. 짧은 링크 글도 읽었지만, 그 안의 모든 외부 논문과 영상까지 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소식을 다룬 여러 글은 독립 증거 여러 개로 세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 2026년 경제학상 수상자가 로버트 E. 홀과 마이클 우드퍼드이며, 수상 이유가 "거시경제 안정화의 미시경제적 기초"임을 확인했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의 수상 해설을 발표 사실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공식 설명도 1970년대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미래 지향적 선택을 바탕으로 안정화 모형을 다시 세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홀에 관한 MR의 긴 해설에서 가장 유용한 부분은 소비 함수의 질문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와 지금 소비가 얼마인지의 관계만 추정하는 대신, 앞으로의 소득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소비 계획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묻습니다. 내년의 큰 임금 인상을 이미 안다면 오늘 지출부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비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를 현실의 모든 가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MR 본문도 단순한 결과에 이차 효용, 자유로운 차입과 저축, 특정 금리 조건이 필요함을 적습니다. **미래 소득을 아는 것과 그 돈을 오늘 쓸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출이 막힌 가계나 위험에 대비해 현금을 쌓는 가계의 행동이 기준 모형에서 벗어나는 지점이야말로 분배와 정책을 함께 읽는 입구입니다. 이번에 홀의 논문 원문이나 후속 실증을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글이 소개하는 의료비 논의도 구별해서 읽을 만합니다. 부유해질수록 추가 소비재의 가치보다 더 오래 살아 그 부를 누릴 가치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비중 상승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라는 모형의 논리입니다. 다만 지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낭비가 없거나 접근성이 공정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MR이 소개한 장기 수치는 조건부 모형 전망이지, 제가 확인한 미래의 적정 예산이 아닙니다. 단일세율 세제와 소비세의 차이를 구분하는 대목 역시 "세율 하나"만 보고 서로 다른 과세 대상을 같게 읽지 말라는 경고로 남길 만합니다.

우드퍼드 해설은 중앙은행이 돈의 양보다 금리와 기대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론을 설명합니다. 가격을 바꾸는 시점이 기업마다 다르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모든 숫자를 같은 비율로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격이 어긋나고 실제 생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 정책을 예상해 오늘 선택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접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설명이 전달됐다"와 "모두가 같은 설명을 믿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를 나눠야 합니다. 자연이자율이나 대표 가계처럼 모형 안에서 편리한 개념이 실제 정책 판단에서 곧바로 관측되는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독해는 모형이 무엇을 설명하려는지에 관한 것이며, 현재 한국의 적정 금리나 특정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은 날 로버츠의 「Back to Keynes for the good life」는 안정화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앞세웁니다. 그는 케인스를 다룬 연극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랑과 관계와 예술을 중시하는 좋은 삶의 이상이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산 체제 안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케인스식 경기 관리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없앨 수 없으며, 1970년대 위기는 수익성 하락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논지입니다.

이 비판의 강점은 안정된 총량과 누구나 누리는 삶을 같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폭을 줄여도 주거, 여가, 노동의 권한, 예술 접근의 격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츠의 "오직 마르크스 경제학만 설명했다"는 표현은 이 글 안에서 다른 이론을 비교해 입증한 결론이 아닙니다. 수익성 시계열이나 경쟁 설명을 이번에 독립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된 경제사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기가 다시 왔다"만으로 "경기 관리가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정책이 없었을 때 더 큰 위기가 왔을 가능성과, 정책으로도 제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남았을 가능성은 함께 존재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오늘의 두 진영을 승패로 정리하기보다, **위기를 없애는 주장, 위기의 폭을 줄이는 주장, 위기의 비용을 나누는 주장**으로 분리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노벨위원회의 평가가 모든 분배 문제의 해답을 보증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 개별 안정화 수단의 무효를 자동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말을 생활의 언어로 바꾸는 가장 좋은 글은 만화가 Jenn Woodall의 긴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예술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다른 일을 얻은 뒤 오히려 원하는 그림을 그릴 자유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창작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의 관찰은, 순수한 예술적 독립이라는 이미지 뒤에 계급적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인터뷰 당사자의 경험과 판단이지 예술 노동 전체의 대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자비출판에 관한 설명도 단순한 독립 찬가가 아닙니다. 작가는 그리기부터 편집, 제작, 판매까지 한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창작자에게 홍보와 사업 운영까지 떠넘겨지는 현실, 저렴한 제작 경로, 지역 행사와 동료의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생산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는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둘을 모두 "자유"라고 부르면 자율성의 조건과 과로의 비용이 사라집니다.

Woodall은 팬에게 언제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물러납니다. 소셜미디어의 조회수 경쟁보다, 작품을 작은 단위로 나눠 독자에게 보내는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 법보다 지속적으로 작업할 조건을 고르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분노를 병리화하는 반응과, 오래된 팬이 작품 세계를 자기 소유처럼 느끼는 태도에 관한 논의 역시 유용합니다. 다만 그 심리 설명을 모든 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작품 전권을 읽은 비평이 아니라 인터뷰 논증에 대한 독해입니다.

여기에 Alan Thornett을 추모하는 짧은 글의 한 장면이 겹칩니다. 노동계급 활동가들이 지도자의 난해한 연설을 이해하지 못하자 자신들의 부족함부터 의심했다가, 나중에는 연설 자체의 문제를 깨달았다는 회고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특정 정치 조직의 역사를 단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과 권위가 만날 때, 이해되지 않는 책임이 항상 듣는 사람에게 있는지 되묻는 태도입니다. 지도자에 관한 중대한 과거 사건들은 이 회고 외의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 별도 사실 설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drian Grey-Turner를 기억하는 글은 철학의 가치를 더 작고 구체적인 곳에 놓습니다. 친구가 남긴 "방에 앉아 타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필자의 오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명한 업적과 학문적 명성보다 회의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일, 친구를 실제로 돌보는 일을 기억합니다. 로버츠가 좋은 삶을 체제의 문제로 묻고 Woodall이 생계와 창작의 문제로

묻는다면, 이 회고는 좋은 삶을 다른 사람이 오래 기억하는 관계의 문제로 돌려놓습니다. 새로 발표된 글이지만 과거 회고의 수정본이라는 점도 구분했습니다.

AI 글들은 이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시험합니다. Casey Handmer의 자동 동료심사 주장을 인용한 MR 글은 적은 토큰 비용으로 논문의 오류를 찾고, 큰 규모의 과학 문헌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낙관을 소개합니다. 비용 수치는 인용된 주장으로 읽었습니다. 이번 본문에는 인간 수준이라는 평가의 표본, 정답 판정, 놓친 오류, 정상 논문을 잘못 지적한 비율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싸게 비판문을 쓴다"와 "신뢰할 만한 심사를 한다" 사이에는 아직 검증의 간격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런 체계를 평가할 때 오류를 찾아낸 수만 세면 안 됩니다. 거짓 경고를 사람이 확인하는 시간, 인용 문헌을 제대로 읽었는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논문에서 무엇까지 검증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계적 재계산, 논리적 반론, 표절 탐지는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총 토큰 지출의 산술이 곧 전체 감사의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의 AI 평가에서 남길 핵심입니다.

다니엘 르미르의 JSON 처리 실험은 오히려 성과를 좁게 정의할 때 주장도 명료해진다는 예입니다. 그가 보고한 것은 정해진 GitHub 이벤트 자료에서 필요한 필드를 읽어 같은 집계 결과를 얻는 작업입니다. 64코어 서버와 자유 스레딩 파이썬, 지연 객체 생성으로 약 66GB/s를 얻었다고 적습니다. 입력을 미리 메모리에 풀어 둔 뒤 시간을 재고, 빠른 방법은 일곱 번 중 최고치를 보고했다는 조건도 본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썬 전체가 그 속도로 움직인다"고 받아들이면 실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디스크 읽기와 압축 해제, 모든 필드의 객체 생성, 다른 하드웨어는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독립 재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글과 자동 심사 주장의 대비는 유용합니다. **같은 결과라는 판정 기준이 분명한 계산 과제와, 무엇이 좋은 심사인지부터 논쟁적인 과제를 같은 성능 언어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Leiter의 AI 개발 중단 소개는 본문이 짧아 연결된 버클리 보도자료와 연구 프로젝트 페이지를 추가로 읽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방안은 최전선 모델의 훈련용 칩 생산을 멈추고, 기존 칩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며, 기존 모델의 사용에는 훈련이 어려운 추론 전용 칩을 쓰자는 것입니다. AI 이용 전체를 즉시 없애자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단서는 연구가 "지도자들이 중단을 원하고 상대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이라는 상황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통제 경로가 있다는 것, 상호 검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 국가들이 합의한다는 것,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주장입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도 공저자가

모든 주장에 동의한다거나 소속 기관이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200쪽 기술 보고서를 읽거나 칩의 제약을 시험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실행 가능성을 확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끝으로 해군력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박하는 Crooked Timber 글은 안정화와 검증의 공통 문제를 다시 보여 줍니다. 교역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군사 지출이 그 교역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항로의 비용, 다른 보호 수단, 개입이 실제로 바꾸는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질문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제시한 우회 운송비와 해적 피해액, 최근 분쟁의 경과를 저는 원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치를 근거로 해군의 경제적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글의 강한 제목보다 비교의 설계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평균 운송비가 작아도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피해는 클 수 있고, 피해가 작게 관측된 이유가 대체 수단인지 예방 활동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전문 분야의 권위만으로 결론을 보증할 수 없다는 지적은, 반대편의 권위를 비판하는 필자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경제학상과 마르크스주의 중 한쪽에 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의 범위를 정하고, 조건을 드러내고, 그 다음 비용과 자유의 분배를 묻는 것**입니다. 안정화 모형은 삶의 목적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창작의 자율성은 생계의 제약을 없애지 않습니다. 계산의 속도는 판단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별들을 지켜야 낙관도 비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꼭 읽을 글은 로버츠의 케인스 비판와 홀의 소비 이론 해설입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란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Woodall 인터뷰를 읽으면 "좋은 삶의 조건"이 창작자의 생계와 생산 통제로 내려옵니다. AI 평가에 집중하실 때는 르미르의 실험과 자동 동료심사 주장의 증거 형식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독해의 한계도 남깁니다. 본문의 확인은 해당 피드나 명시한 추가 출처에서 실제로 읽은 주장과 발표를 뜻하며, 모든 외부 수치의 독립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 기준의 조건부 출처입니다. Psephizo·EconLog·Gelman은 오늘도 정상 요청에서 403으로 거부돼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해당 출처의 누락을 읽은 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우회나 반복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